

사회

학교폭력 이렇게나 많았어?

광주·전남 117센터 개소 한달만에 1000건 신고

“같은 학교 남학생들이 자꾸 허벅지나 신체 곳곳을 만져요. 괴로워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전남 한 여중생)

“싸움을 잡하는 같은 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없다고 하면 욕을 하구요. 그동안 빌려준 돈도 못 받았는데도 말이예요.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혼날 것 같고, 학교에 말하면 소문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광주 한 남자 중학생)

지난달 문을 연 ‘광주·전남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하루 평균 56건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신고 및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경찰과 교육청,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 지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5일간 117센터에 걸려 온 전화는 광주 1441건, 전남 131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광주 58건, 전남 53건이 접수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전체 신고전화 가운데 약 36% 수준인 520건이 학교폭력 관련이었다. 유형별로는 폭행·협박 202건, 공갈·갈취 38건, 성폭력(추행 등) 6건, 강요(소위 빵 서를 등) 4건, 모욕(욕설 등) 63건, 따돌림 8건, 정보전송 1건, 기타(절차 상담 등) 158건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 2건, 성폭력 4건, 가정폭력 4건 등 10건의 학교폭력의 사건 신고도 접수됐다.

전남은 전체 신고전화 가운데 36.5%인 481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했으며, 폭행·협박 117건, 공갈·갈취 7건, 성추행 2건, 강요 3건, 모욕 56건, 따돌림 37건, 기타 208건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52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중이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관련

교육청이나 학교에 직접 통보하거나, 간접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보다 전문적인 학교폭력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클래스(Wee class)와 연계하기도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박승희 계장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117 센터에 전화를 거는 학생들이 대

부분이기 때문에 비밀보장을 가장 중시한다”며 “가해 학생의 사과와 피해 학생의 금품 회복 등 둘 사이의 관계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국 시도로 확대, 17개 광역센터를 운영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지한 눈빛

16일 광주교육대 강당에서 열린 전국교원양성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설명회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교사 특채 채점위원 재소집 점수 조작

檢, ‘합격자 바뀌치기’ 시교육청 직원 2명 기소

장항국교육감 개입 증거 없어

경찰이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비리와 관련 시교육청 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16일 사립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교사 특채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광주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 이모(56)

씨와 담당직원 이모(42)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2월22일 실시한 흥복학원 산하 대광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립 특채 과정에서 음악과목 점수를 조작해 전교조 소속 교사를 합격시킨 혐의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과잉 해소, 내부고발자 보호, 흥복학원의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1명이 불합격자 이씨 등이 채점위원을 재소집해 시험점수를 다시 매기는 방법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장항국 교육감의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

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공무원으로 합격한 전교조 교사 5명은 지난 2006년 흥복학원 이사장과 학원 산하 교장들을 교비횡령 등으로 고발해 학교법인 측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흥복학원 측이 이들의 특채를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사 특채는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채용의 소지가 많다”며 “특채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보호해 줄테니 돈 내”

출장마사지 업주 협박 돈 뜯어 내고 성상납 조직폭력배 3명 구속

불법 출장마사지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 상납을 받아 온 전남 동부권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출장마사지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성 상납을 받은 혐의로 여수 중앙과 조직폭력배 장모(32)씨 등 3개파 조직원 3명을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장씨 등은 여수 중앙과, 순천 시민과, 광양 라이온스와 등의 조직폭력배들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불법 출장마사지 업주 나모(여·43)씨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20~100만원씩 모두 3000여 만원을 뜯어온 혐의다.

특히 이들은 나씨를 협박해 출장마사지 여종업원들로부터 수시로 성 상납을 받아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호비를 내는 업주에 한해서만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취객 팔 부러뜨린 경찰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지구대 행패 20대 제지하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만취해 소란을 권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팔을 다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4시경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에서 박모(44) 경사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온 이모(26)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팔을 부러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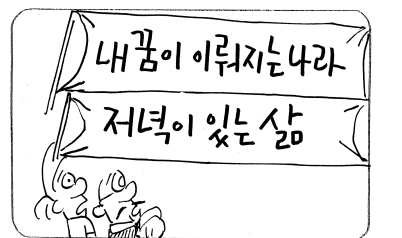
이씨는 이날 광주시 동구 한 술집

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주가 112에 신고했다. 지구대로 불려온 이후에도 이씨는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박 경사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팔을 뒤로 꺾는 과정에서 이씨의 팔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과 당시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상황을 조사하고 나서 과잉진압으로 판단했다. 광주동부경찰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를 제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며 “치료, 합의를 진행상황을 보고 검찰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610) 김종두



총인시설 납품 알선 대가 2000만원 받은 기자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광주 총인저감시설 공사와 관련 특정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2000만원을 받은 남도투데이 나모(54) 기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1년 6월13일 총인저감시설 공사 중 20억 원 상당의 원상탈수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모 업체 관계자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항암치료 주부 모피의류 훔쳤다 멀미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주부가 백화점에서 고가의 모피의류를 훔쳤다가 또다시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모(여·49)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시 서구 모 백화점 여성의류 전문매장에서 시가 600만원 상당의 모피의류를 훔쳐 달아나는 등 광주지역 백화점을 들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

○경찰은 절도 범죄 경력이 많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암 투병중인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금 간 ‘민주의 종’ 제작자 무혐의

장애아동 감금 시설장도

검찰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민주의 종’ 부실 제작과 증증장애아동 감금 행위 등과 관련된 제작자와 시설장에 대해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 두 사건 모두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격론 끝에 이 같이 결정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용호)는 최근 장애아동을 감금하고 체벌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A(40)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B(17)양을 폭 1m, 길이 1.7m, 높이 1.5m의 침대 철창에 가두고 장애아동을 방에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수를 제대로 못한 공무원 박모씨와 부실하게 감리한 나모씨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또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용호)도 최근 장애아동을 감금하고 체벌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A(40)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B(17)양을 폭 1m, 길이 1.7m, 높이 1.5m의 침대 철창에 가두고 장애아동을 방에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 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병문 소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